

#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5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27:1-6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9장 ..... 다함께

교 독문(Responsive Reading) ..... 3번 ..... 다함께

공 동 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랑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기 위해 순간 순간마다 몸을 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능력임을 믿사오니, 저희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게 하시고 그것이 곧 사랑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누가복음 6:39-45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내 눈의 들보를 뽑아야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봉 헌(offering) ..... 1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217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2022년 달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기관들과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 이진국권사님 어머니를 위해

<말씀묵상> 누가복음 6:41-45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형제의 티를 빼려는 사람을 어떤 자라고 부르십니까?(41-42절)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 들보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43-45절) 나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고쳐야 할 부분에 관해, 충고나 조언을 했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워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쉽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대해서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속사정이나 그가 처해 있는 입장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현상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충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티를 빼줘야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티를 내가 빼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불리 건드렸다가는 자칫하면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른 속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닌 자신의 변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